

55개국 거쳐 경전 가져온 선지식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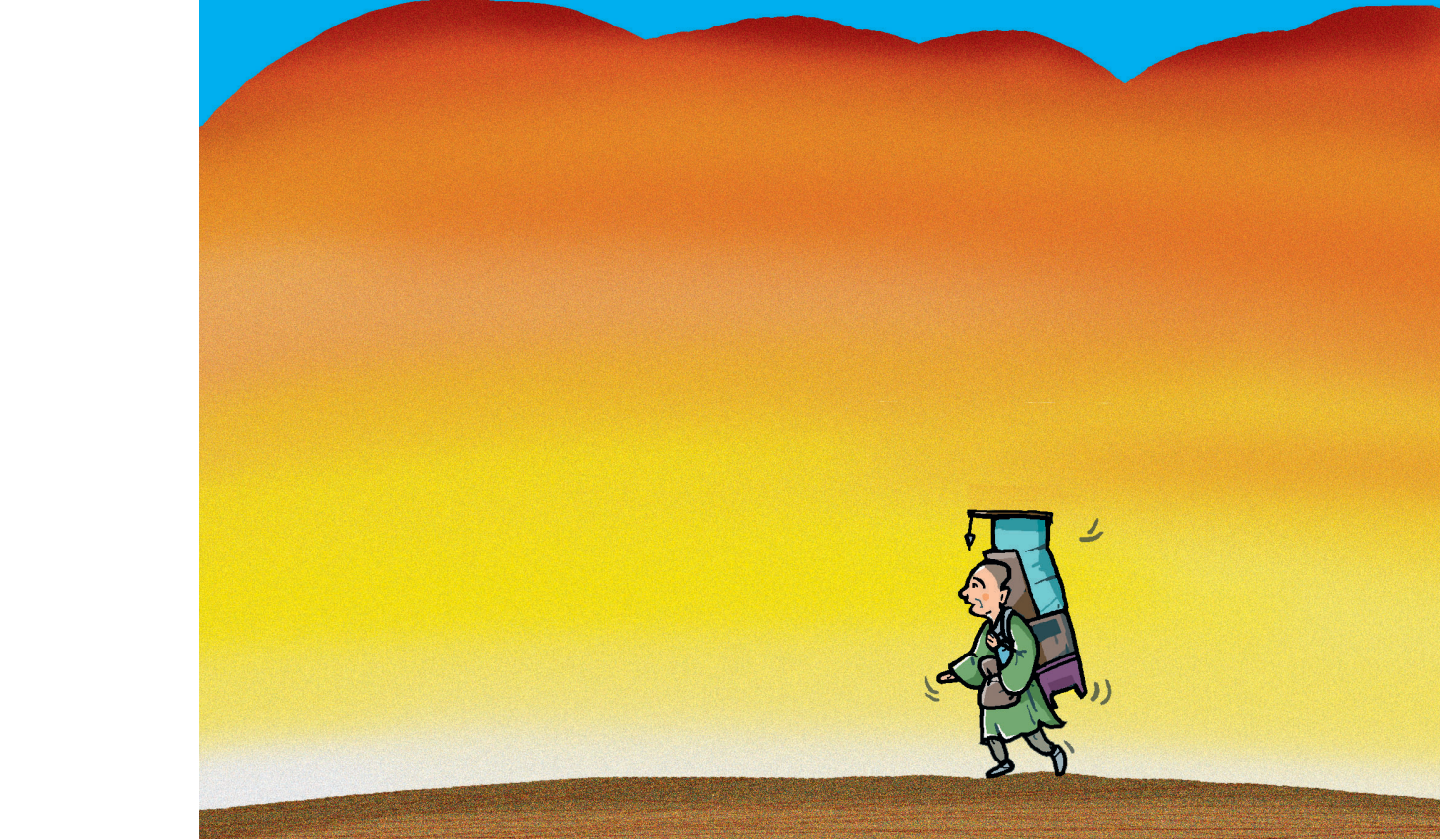
◎ 구법승 현장, 그는 누구인가?

몇 년 전에 실크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접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거의가 사막인, 정말로 뜨겁고 뜨거운 길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있지 못할 추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화염산(火焰山)에서 수박을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박 먹은 것이 무슨 사건이냐구요? 아닙니다. 분명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죠. 평생 그렇게 맛있는 수박은 처음 먹어봤다고 할 정도로 강렬하게 수박의 맛을 느꼈으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화염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손오공과 함께 지나야 할 곳입니다. 거기서 아주 지독한 요괴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그 타오르는 불을 식히기 위해 또 엄청 고생을 해야 하는 곳이지요. 그 뜨거운 화염산 지역을 한 시간 남짓이나 돌아봤을까요? 벌써 40도를 웃도는 더위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집결지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곳에 병장한 수박, 정말 크기도 우람하게 큰 럭비공 모양의 수박을 잘라 놓았더라고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 년 강수량이 30mm 정도인 곳입니다. 또 태양 빛은 얼마나 강렬하구요. 그런 곳에서 잘 익은 수박이나 얼마나 달겠습니까? 화염산의 뜨거움에 달구어진 저에게, 냉장했던 수박의 온도는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정말 천상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황홀한 기분으로 수박을 먹었던 기억...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침이 넘어가고, 그때의 속이 시원했던 기분이 느껴집니다.

어허! 나칠게님! 상태 이상에 빠졌군요. 벌어진 입하고 흐르는 침하고... 심각한 상황이군요. 당장이라도 화염산으로 날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나칠게님,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수박이 아닙니다. 수박 타령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화염산 타령을 하려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수박으로 빠졌지만요.

바로 현장법사가 지났던 곳이지요. 한낮에 자동차 보닛에 계란을 깨어 얹으면 바로 계란 프라이가 된다는 곳이지요. 그 뜨거운 곳을 지나면서 현장법사는 시원한 수박 한 덩어리 드셨을까요?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듬뿍 누리면서, 자동차로 여행을 해도 파김치가 되는 그곳을 그 옛날에 어떻게 지나셨을까요? 인도로 구법을 떠나는 현장법사를 그린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등이 휠 정도로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지고 있더라고요. 홀몸으로도 힘들 길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나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수많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유사하여 쓰는 해골로 비유해서 말했었지요? 18년간의 인도 구법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경전을 전해 주신 현장법사야말로 그러한 은혜를 끼친 분들 중에서도 첫손가락을



그림·최주현

꼽을 만한 분이 아닐까요?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돌아와서도 큰 존경을 받았고, 또 응송한 대우를 받았다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역경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그렇지만 출발할 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관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가는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에 허락 없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숨고 밤에만 이동했다 하지요. 실제로 국경을 넘기 직전 접자로 고발. 다행히 불심 깊은 지역 관리의 도움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당의 국경인 옥문관을 넘어 고비사막으로 들어섭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 되지요. 모래 폭풍이 불면 옛길은 사라지고 새 길이 생기는 곳, 햇살이 바늘처럼 얼굴을 찌르고, 바람에 날린 모래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그곳을, 닷새 동안 물 한방울 먹지 못하고 헤매기도 했다 합니다. 그렇게 힘든 인도로의 여행길에서도 가장 힘들었을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화염산 지역이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험난한 자연을 극복하고 인도에까지 다녀온 우리의 영웅, 바로 서유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현장법사가 등장하는 대목이지요? 이 대목이 되니 자연스럽게 그 현장법사가 걸었던 길을 다녀온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야기가 한참 해매 들었군요. 현장법사가 처음부터 큰 기대를 등에 업고 화려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구법여행 떠나는 현장법사를 그린 그림처럼 무거운 등짐만을 지고, 그 험난한 자연 속을 헤쳐나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던진 여행길이지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결코 시작도 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한 뜨거운 구도심의 덕분으로 우리가 불법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8년 구법으로 경전 전한 공덕 '옴' 서유기와 달리 출발부터 고난 손오공도 현장법사의 한 측면 대변

물론 서유기에는 현장법사의 출발을 화려하고도 장엄하게 각색하고 있습니다. 현장법사의 기구한 운명과, 구속에 깃든 인과응보의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가 한참 전개되죠. 그리고 당태종이 죽었다 다시 살아가는 설화가 나오고 또 당태종의 동생인 공주가 혼백이 뒤바뀌는 이야기 등의 신비한 설화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여 불교를 숭상하게 된 당태종이 뛰어난 승려를 선발하게 되고, 거기에 현장법사가 발탁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그리고 이러한 전개의 마무리에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여 교묘한 경로를 통해 현장법사에게 부처님께서 전한 금란가사와 구완석장을 전하고,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것을 부촉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를 위해 마지막 대목만을 간단히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장법사가 황제가 연 법사에서 설법을 하는데 문둥이 승려로 화려한 관세음보살이 꾸짖습니다. 왜 대승교법은 모르고 소승만 강설하느냐고. 그래서 소란이 일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관세음보살이 법단에 오릅니다. 그리고 보살의 참모습을 드러내지요. 손에 벼들을 꽃을 정병(淨瓶)을 든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모습으로요. 모든 사람이 찬탄 예배하는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떠나시고 허공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대당국(大唐國)의 임금님에게 올립니다. 서방에는 오묘한 경전이 있습니다. 십만팔천 리 먼 길이지

만 이 대승의 진리를 구하십시오. 만약 이 법을 구하러 나서서 이가 있다면, 바른 과보를 얻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당태종은 서방으로 대승의 가르침을 구하러 갈 승려를 찾게 되고, 현장법사가 거기에 자원합니다. 당태종은 감복하여 현장법사와 의형제를 맺고, 그를 어제성승(御聖聖僧), 즉 '임금의 아우인 성스러운 스님'이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길한 날을 잡아서 서방으로 경전을 가져오는 여정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유기 작자의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런 거창하고도 화려한 출발이 아니라, 몰래 국경을 빠져나가기 위해 고생을 하며, 목숨을 걸고 출발한 구법의 여행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법사 당시에 이미 불교가 전하여져, 상당히 융성한 교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렇지만 불교의 진정한 정신은 전해지지 않았고, 특히 대승의 높은 법문이 전해지지 않았기에 그것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현장법사가 인도로 경을 구하러 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실제로는 대승불교가 이미 전해져 있었습니까. 아니, 중국에는 애초부터 대승불교가 전해졌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실크로드 쪽을 통해서인데, 그 경로로 전해진 것은 대승불교라 부르는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소승불교라 부르는 흐름은 대체로 동남아 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흐름은 중국에 바로 전해지지 못하고 북방을 통해 대승불교가 전해진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북방을 통해서 대승불교를 접하게 되었지요. 문제는 산발적으로 불교가 전해지고 보니, 그렇게 전해진 경전의 온전치 않았고 번역에도 오류가 많았으며, 또 통일적으로 불교를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현장법사에게 직접 인도로 가서 불교를 전체적으로 깊이 배우고, 또 많은 경전을 가져와 온전한 번역을 하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게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소재로 할 것이기에 이번 이야기는 현장법사 이야기를 좀 건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건조하게 현장법사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현장법사의 속명(俗名)은 진위(陳祿)입니다. 하남성(河南省) 출신이지요. 낙양의 정토사(淨土寺)에서 출가를 하였고, 그 다음 장안(長安)-지금의 서안(西安)이죠-의 장엄사(莊嚴寺)로 옮겨갔다가, 사천성을 거쳐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는 행로를 보입니다. 그 과정 15년 동안 외국어와 불경을 배우고 나서 인도로 구법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 627년의 일이고, 현장법사의 나이 26세 때의 일입니다. 인도에 이르는 동안 55개 정도의 나라를 거쳤다고 하지요. 그리고 10년 남짓 인도의 나란다 불교대학에서 수학하면서 많은 고승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식학(唯識學), 종파로는 법상종(法相宗)이라 불리게 된 계통의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지요.(현장법사는 중국 법상종의 개조입니다) 그리고 귀국길에 불경 640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다시 장안에 도착하기까지 18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 양복하는 동안 거친 거리는 대략 1만6천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당나라로 돌아와서는 당태종에게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출국할 때 몰래 도망치듯 나간 것과는 매우 달랐지요? 그리고 그런 왕실의 칭송과 후원 아래 불경 번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불경 번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장 스님의 번역이지요. 그리고 인도 여행의 경험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은 당시 중국과 실크로드, 그리고 인도의 문물을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하, 아주 건조하죠? 삼패선생도 이렇게 건조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크! 팔팔때 날아올 것 같아 중지하고 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역사에 남을 큰 사건입니다. 물론 인도에 갔거나 다녀온 많은 스님들이 있지만, 현장법사는 그 의미가 남다르지요. 같은 사건을 겪어도 남긴 자취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예가 될 것 같네요.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경전을 구해서 돌아왔는지, 그 경전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번역했는지, 인도에서 배워온 불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하였는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현장법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시절부터 그 험난한 길을 다녀온 현장법사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의 소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지고 하여 결국 명나라 때의 소설가 오승은(吳承恩)에 의해 서유기라는 소설로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손오공 등은 모두 현장법사의 어떤 한 측면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손오공 삼 형제의 활약이 바로 현장법사의 활약이라는 거,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의장등록

사업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흥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생사업 등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돼, 문물달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고 불경기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 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령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개업선물, 사업성공의 선물로 품격

- ▶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 ▶ 문의 : (02)723-4533
- ▶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사찰·스님 20% 할인)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평생부자지갑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아가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 한다.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에나멜 처리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별도로 움지아된 교통카드 쪼기도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얻고 평생부자로 살게!!

있다.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75,000원 여성용 지갑 120,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23-4533 (사찰·스님 20% 할인)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www.kapilla.co.kr * 공휴일 접수 가능

앞면

뒷면

의장등록

호신불규격직경 3.5cm, 세로 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용 호신불

■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옆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옆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문의 : (02)723-4533
농협 : 053-01-269765 (예금주 : 카필라불광사)

의장등록